



비즈 포커스 | SK(주) 4대 사업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투자전문사'로 진화

‘첨단소재·그린·바이오·디지털’ 센터 명칭 변경...조직개편 단행
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강화
외부 파트너 자본·기술 적극 유치

SK그룹 투자전문 지주회사 SK(주)가 올해 ‘첨단소재·그린·바이오·디지털’ 4대 핵심 사업 실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전문 회사’로의 진화에 속도를 더 한다는 방침이다.

SK(주)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4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존 ‘투자

1·2·3·I Cube센터’ 명칭을 ‘첨단소재·그린·바이오·디지털 투자센터’로 바꿨다.

첨단소재 투자센터는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사업을 맡는다. 시장의 빠른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 신소재 고분자 전공 박사급 전문 인력 영입과 핵심 기술 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린 투자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사업모델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SK그룹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

는 지속가능 대체식품 사업과 리사이클링, CO2 포집·활용 영역의 신기술과 혁신 사업을 지속발굴할 방침이다.

바이오 투자센터는 신약개발과 원료 의약품위탁생산(CMO) 두 축으로, 합성신약에서 바이오신약까지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인수를 추진 중인 프랑스 유전자치료제 CMO사 이포스케시를 시작으로 고성장 바이오 CMO로 영역을 확장해 합성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일류 CMO로의 도약을 꾀한다.

디지털 투자센터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머징테크’ 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유망영역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인프라 분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주)는 4대 핵심 사업 육성에 뜻을 함께 하는 다양한 외부 파트너의 자본, 기술, 투자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투자전문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시 투자 회수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현 수익은 미래 성장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장동현 SK(주) 사장은 “올해는 4대 핵심 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SK(주)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실행에 옮기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과 신뢰를 주는 매력적인 기업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소비자원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증가”

‘계약’ 관련 피해 63.6%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6만 9452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6년 1만33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69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동안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은 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 (4만 418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다. 그 중 소비자가 환불·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 입증 자료 미흡이나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8%(4464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광석 우리은행장 “혁신 DNA로 디지털 금융 주도”

비대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경쟁사 카뱅 대표 연사로 파격 초빙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22일 비대면으로 열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혁신 D.N.A로 미래 디지털 금융시대를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혁신 D.N.A는 우리은행의 3대 경영 추진방향인 ‘디지털 혁신(Digital)’, ‘지속가능 성장(Net)’, ‘수익기반 확대(Action)’의 영단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핵심 경영 키워드다. 또 “회의, 보고, 의사결정 등 일하는 방식에 디지털 사고방식을 갖춰 디지털 혁신의 가속도를 높이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가 특별 강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혁신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진제공 | 우리은행

사례와 금융의 미래 등 디지털 혁신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동일 업종의 경쟁사 CEO를 강사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 사례다.

우리은행 측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우수한 점을 배우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권행장의 혁신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영국 왕실 식기브랜드로 주방 품격 높여요” 롯데백화점이 2월 4일까지 본점 8층에서 영국 왕실 식기브랜드 웨지우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디자이너 베라왕과 협업한 ‘베라왕 자르단’,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리버튼’과 ‘플로랄 에센’ 등을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KT, AI 기반 감염병 대응 연구 앱 출시

KT는 빌&펠린다 게이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SHINE’(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정보 연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지난해 4월 KT컨소시엄과 게이트 재단은 각각 60억 원을 공동출자해 감염병 확산방지 연구를 위한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협력 기관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모바일닥터, 메디블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시한 앱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KT가 국내 협력기관들과 공동 개발한 것이다. 이 앱은 사용자 주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질병 발생 현황을 알려주며 발열, 두통, 기침 같은 독감 유사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적용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사용자에게 한해 감염병 확산 연구에 활용된다.

김명근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 중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사 010-9339-8649 / 신바전 010-9220-4334 / 권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임현성 010-3315-1517 / 성경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만 010-4741-7008 ● 초전교 010-7374-4111 / 서재호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임종현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5 ● 천안 김태희 010-6258-3510 / 오영숙 010-8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포종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허민석 010-4707-2659 ● 한신회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드러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태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교영실 010-5463-6952 ● 중국 충동옥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허위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